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박월라 중국팀 연구위원
이보근 전임 북경사무소장(원외 동반자)
2. 출장기간: 2010년 6월 23일- 2010년 6월 25일
3. 출장지: 중국 북경
4. 출장목적
 - 북경사무소 설립 1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참석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	비고
10-06-23	인천 → 북경	출국	
10-06-24	북경	세미나 참석	
10-06-25	북경 → 인천	귀국	

III. 활동 내용

1.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 초청 오찬 참석
 - 일시 : 2010년 6월 24일 12:00-13:30
 - 참석자 : 채욱 원장 외 KIEP 관계자 3명, 왕이밍 부원장, 천둥치

부원장 외 AMR 관계자 4명

- 주요 논의 내용

- o 최근 중국경제 동향, 중국의 부동산버블 대책, 소득분배 정책 등과 관련, 한국의 경험 소개 등
- o 양 연구기관 간 협력 방향 등 논의

2. KIEP 북경사무소 설립 15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참석

- 일시 : 2010년 6월 24일(목) 13:30-17:30

- 장소 : 북경 캠퍼스키호텔 Jade Ballroom

- 주최 및 후원

- o 주최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
- o 후원 :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, 중국한국상회

- 주제 : “포스트 국제금융위기 시대의 韓中 경제협력 VISION”

- 참석자 :

- o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, 국무원발전연구중심, 사회과학원, 상무부 국제경제협력연구원, 대학교수 등 중국의 전문가 100여 명 참가
- o 주중 한국대사관, 중국한국상회 회원 기업, 중국내 한국계 기관 인사 등 100여 명 참석

- 출장자 역할: KIEP 및 북경사무소의 연혁, 기능, 활동 내용 등에 대해 발표(첨부자료 참조)

3. 세미나 주요 발표 내용

-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: <국제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 변화와 한국의 대응>
 - o 최근의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새로운 ‘글로벌 거버넌스’ 논의,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, 미래 한국의 대외경제 관련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의견 개진
 - o 특히 G20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경제규모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, 국제사회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
- 왕이밍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: <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발전방식 전환>
 - o 과거 30년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, 인구대국에서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으며, 향후 30년간은 ‘발전방식 전환’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발전해야 할 것
 - o 새로운 발전방식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1)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 확대, 2) 제조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, 3) 기술혁신 및 인력자원 개발, 4)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, 5)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, 6) 소득분배 관계 개선을 통한 조화로운 사회 건설, 7) 에너지 절약 및 순환경제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전략 등 7대 과제 제시
- 자오진핑 DRC 대외경제연구부 부부장: <중국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그 변화>
 - o 한중 무역투자 발전추세, 중국의 무역 및 외자 이용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, 향후 한중 경제관계의 방향 등 논의

- 양국간 무역, 투자, 산업, FTA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을 강조, 한중 FTA 협상의 조속한 추진 촉구(2010년대 상품분야 협상, 2014년까지 서비스무역과 투자협정 마무리, 2015년 한중 자유무역지대를 건설, 2020년까지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지대 건설 등 제안)
- 지만수 KIEP 중국팀장: <한중 경제협력 비전과 FTA>
 - 한중 FTA 협상은 그것이 갖는 의의와 특수성(동일한 분업구조내의 FTA, 동아시아공동체로 나아가는 플랫폼으로서의 FTA,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전면적 추진이라는 비전 내에서의 FTA)을 감안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지적
 - 양국의 민감한 부분은 충분히 배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기수확프로그램(EHP)의 전면적 활용, 성과확대형 FTA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장기적 협력프레임워크 구축 등을 제안
- 주제발표에 이어 쉬창원(徐長文) 중국상무부 국제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·아프리카 연구부 주임, 왕윤중(王鈺鍾) SK 중국경영경제연구소장, 조철(趙撤) 산업연구원 북경사무소장, 양위잉(楊玉英) 거시경제연구원 산업경제기술연구소 부소장 등이 토론 진행
 - 한국기업이 중국 중서부 지역으로의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,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의 하나로 중국기업이 대한국 투자 확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(쉬창원 주임)
 - 한중 기업간 성공적인 협력모델과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, 과감한 기술이전과 교류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은 물론 글로벌시장 공동진출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(왕윤중 소장)
 - 에너지나 환경문제는 단순히 기업간 협력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

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며, IT, BT, NT 등의 융합화는 기존 주력산업에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하는 문제로 양국간에 보다 폭 넓은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해야 할 분야라고 지적(조철 소장)

- o 한중간 금융과 물류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고, 서비스분야 협력 논의를 위한 기업간 교류 및 학술교류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지적(양위잉 부소장)